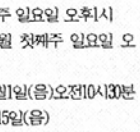
법회안내

길상사(02)3672-5945~6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주지 청학스님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암 포교원(062)232-5774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주지 진관스님

대구 청정선원(042)625-1080
좌선법회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
취암스님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저녁7시

전북 선원사(0671)31-0108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남원불교대학 동문회법회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광주 연화사(062)227-7295
산중기도 매월 5·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부산 미륵사(051)404-2100
초하루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성희사(053)623-8334
감사헌공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안일사(053)655-0221
기도정진법회 매월1~7일(음) 오전10시
교양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대구 구도회(053)654-8533
경전법회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
좌선정진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
어린이·중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나눔 고루 베푸는 자 부처님을 본다

음력 8월15일(9월16일),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대보름이 밝아오고 있다. 8월 보름의 달빛이 가장 좋아 〈예기(禮記)〉에 '춘조월 추석월(春朝月 秋夕月)'이라 한 데서 차용된 '추석'은 결실의 풍요로움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한가위에도 굶주리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특히 유니세프의 캐롤 밸라미 총재가 지난 8월 4~7일 북한을 방문하고 밝혔듯이 북한 어린이의 34%인 80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8만여명은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겨울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추석을 맞아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갚음을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잡아함경〉

▨죽음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곳에도 은혜로 베푼 보시의 복덕은 자기를 따르는 양식이 되나니 자기를 잘 거두어 단속하고 마음을 닦은 공덕을 의지하여 돈 재물 음식을 능력따라 널리 베풀며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닦으면 비록 삶을 마친다해도 그것은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별역잡아함경〉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네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별보시경〉

▨보시하는 마음에 부처님 뵙고 구제받는 인연 맺으리라. 선과 악은 제 갚음을 받는 법, 자신이 닦은 선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일아함경〉

▨깨끗한 믿음으로 손수 베풀면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로우리니 이처럼 베푸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리라. 믿는 마음 이미 청정해지고 열반 또한 얻으리니 살아서 극락이요 죽어서도 극락이로다. 〈별역잡아함경〉

▨대승에 이르려면 네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 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 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함 시하득대령경〉

▨탐내고 인색하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함은 전에 은혜로서 베풀지 않은 탓이니, 만약 복덕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널리 베풀어야 하리라. 〈별역잡아함경〉

신행수첩

깨달음 얻는 철야참선

읽으면 견처를 얻고, 실천하면 견성하며, 중단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우주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챙기는 수행법 위빠사나.

은해사(주지 법타)는 9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밤8시부터 다음날 아침4시까지 참선지도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법산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는 철야법회는 생활속에서 참선수행을 실천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0563)35-3318

석불 뿌리찾는 대륙탐사

전국에 산재한 석불을 찾아 문화유적답사를 하고 있는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8일부터 11월5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중국석불 및 문화답사를 떠난다.

한국석불의 원류를 찾아 떠나는 이번 중국답사에서는 운강석굴, 용문석굴을 비롯 문화유적의 보고인 북경 정주 낙양 서안 상해 등을 둘러본다. 운강 용문석굴을 통해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석굴사원의 흔적을 더듬어보고, 경주 석굴암과의 관계도 살펴보게 된다. (02)760-5171

화쟁사상으로 보는 통일

부처님 가르침이 올곳이 살아숨쉬는 팔만대장경을 처음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지 35주년을 기념하는 큰법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26일 오후6시 종로 대각사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김지견박사(전통불교연구원 원장)를 초청 '남북통일과 불교의 화쟁사상'에 대한 특강도 마련한다. (02)765-0972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7시에 '불교문화의 배움터'를 개최한다.

사찰문화와 불교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첫째주는 전문가를 초빙, 셋째주는 김현준원장이 강의를 맡는다. △9월18일, 10월17일, 11월21일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10월2일 '향료' △11월6일 '사리장엄구' (02)587-6613

대중불교 그 미래를 본다

한국불교대원회(회장 박윤흔)는 20, 21일 양일간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에서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대중불교 운동의 미래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과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교수 등이 '대중불교 운동에서의 재가자의 역할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02)754-1613

◇93년 6월26~27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던 '제5차 대중불교 결사 전국대회'의 모습.

훈훈한 한가위

추석선물·성금 모집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추석. 오는 9월16일은 우리민족 2대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다. 그러나 오곡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추석이 오면 더욱 쓸쓸해지는 이웃이 있다. 불우노인 고아 소년소녀가장들이 바로 그들.

조계종 제9교구신도회·대구광역시신도회(회장 최동원)는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나선다. 同 신도회는 이들을 돕기 위한 물품과 성금을 모집한다. 쌀과 속옷을 비롯 치약 칫솔 수건 비누등도 환영받는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십시일반의 정성이 모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권선하고 있다. (053)253-2886, (053)252-9485

은행온라인: 중소기업은행 152-021756-01-016(대구신도회)

독거노인에 송편공양

둥근 보름달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가 11일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 노인정에서 열린다.

복지관의 스님, 직원, 지역주민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며 한가위를 위한 송편을 빚게 된다. 큰 명절을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과 어른 공경을 배우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에서 빚은 송편은 외롭게 한가위를 보내는 독거노인세대에게 공양올려진다.

민족의 명절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한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밝고 훈훈한 자리가 될 듯. (051)363-2063

나의 수행일기

'연기사상' 내 인생의 나침반

대구경불련 창설 앞장… '생활불교' 전파

강인성

나는 대구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일종인 안경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사촌자형이 경영하는 안경테 수출업체에 근무할 때 사정상 서울에서 대구로 근무처를 옮기면서부터다. 네 회사를 설립한 것은 그로부터 4년후인 91년 3월 31일이었지만 그로인해 집안간에 약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회사 개업식날 모친과 사촌누이가 다니는 태백 현불사의 설송(雪松) 대법사님은 개업축원 법문에서 마음속의 엉김을 풀어주셨다.

"자네는 항상 이 연을 맺게 해 준 삼원산업사 사장인 사촌자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회사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일보다 우선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나는 항상 대법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불심도 더욱 깊어져 해마다 연말이면 가족과 함께 현불사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곤 했다. 특히 임신중독증 상태에서 세상과 연을 맺어 약간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 승현이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은 부자간의 인연을 더욱 깊게 해주곤 했다. 그로부터 6년간 외국을 오가며 열심히 사업에 정진한 결과 지금은 연간수출 5백만불의 중견 안경수출업체로 도약하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 되었다.

그러던중 이같은 가피를 회향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을 아셨던지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김명한박사(상인이비인후과 원장)가 서울의 경불련 같은 불교시민단체를 대구에서 창립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리하여 주위의 불자들과 경실련 회원등 뜻을 같이하는 몇몇이 모여 지난 3월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마침 나는 이 모임의 회장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많이 망설였지만, 일단 중책을 맡음으로써 직책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결국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주로 미국출장 비행기 안에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담은 〈천수경이야기〉 등 불교관련 서적을 편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이제는 동체대비, 자리이타 등 기본적인 불교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대중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기게도 되었다.

우리 모임의 수행위원장인 반야사 주지 법상스님의 "불교는 불법의 단 맛을 안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권유하는 종교다"란 말씀이 생각난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의 신행단체장 생활을 통해 쓴 맛을 보기도 했지만 단맛도 많이 느꼈다.

모임을 꾸려가면서 많은 덕높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배운 사실이 그것이다. 또 그로인해 불교지식을 바탕으로 외국 친구들(대부분 바이어)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근원인 불교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단맛중의 진미는 아닐까 한다.

지난 8월 대구경불련 하계수련회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하신 법문은 필자의 사업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단맛을 전하는 신행의 좌표가 되었다.

"모든 만물들이 연기법에 의하여 생성되었기에 우리 모든 시방세계의 중생들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연기법적 사고, 즉 공존 균형 조화로써 풀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총칼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리이타의 연기법적인 해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대구경불련 회장·진양산업사 대표〉

就 박 진 완 회원님의 任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A 지구 ●
- 서울 반야 라이온스 클럽 회원 일동 -

대구지역 반야 라이온스클럽의 창립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연락처 : 02)732-0612